The Hope Report 8호 [2013. 5]

평생학습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누구나학교'

목차

1. 평생학습도시와 수원시평생학습관
2. '누구나학교' 1년의 도전과 실험
3. '누구나학교' 성과와 향후 추진전략
4. 글을 마치며

작성 | 수원시평생학습관

정성원 관장(희망제작소 부소장) | sansotong@makehope.org
임성미 팀장 | uslung00@makehope.org

– 수원시평생학습관은 2011년 9월부터 희망제작소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
The Hope Institute

개요

교과부는 평생교육 인프라 확충과 활성화를 위해 매년 전국의 시 · 군 · 구를 대상으로 공모와 심사를 거쳐 평생학습도시를 선정해 왔다. 2001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2012년에 서울의 은평구와 부산의 진구 등 총 8개 지역이 선정되면서 지금까지 전국에 총 92개 도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다. 수원은 2005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를 좀 더 활성화하고자 2011년 10월에 지금의 평생학습관을 개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평생학습도시는 시민의 생활권인 도시에서 시민 교육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 교육이 다시 어떻게 지역으로 환원되는가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수원시평생학습관은 지역에 환원되는 시민의 평생학습, 시민이 주도하는 평생학습 모델은 어떠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 '누구나학교'는 이런 노력으로 찾아낸 기획이며 기존 평생학습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새로운 도전이었다.

1. 평생학습도시와 수원시평생학습관

보통 평생학습도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언제나, 어디서나, 누

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 건설을 도모하는 총체적 도시 재구조화 운동이다. 그리고 지역 사회의 모든 교육 자원을 기관 · 지역, 사회 · 국가 등에 연계시켜 네트워킹 학습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지역 시민에 의한, 지역 시민을 위한, 시민의 지역사회 교육운동이다."

혹자에 따라서는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의미규정이 다를 수 있겠지만 위 개념의 핵심은 평생학습이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그리고 관 주도가 아닌 시민을 주체자로 본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평생학습도시들이 관 주도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해마다 큰 차별 없이 진행되고 있다. '시민이 주체자가 되어야 한다'는 평생학습도시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다.

(1) 수원시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기관의 고민

양적지표로 인해 인기강좌 우선 배치

수원시평생학습관처럼 지자체로부터 운영재원을 전적으로 지원받는 평생학습기관은 양적지표를 무시할 수 없다. 양적지표의 대표적인 것이 연간 프로그램과 이용자 숫자이다. 평생학습에는 다양한 강좌가 필요하지만, 수강생이 많이 몰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인한 선택과 집중

수원시평생학습관은 연간 300개 내외의 크고 작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물론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무제한 확장할 수는 없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재원의 제약 등등 조건 때문에 시민에게 필요한 혹은 시민이 요구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수용할 수 없기에 결국 기관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선택 행위에 시민은 배제되어 있으며 교육의 스펙트럼도 단순하고 좁아지게 된다.

실무자가 할 수 있는 기획의 한계

평생학습기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은 실무자의 강좌 기획부터 시작된다. 강좌 기획이 실무자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요소를 종합하고 결정하기까지 담당 실무자의 능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그래서 평생학습 관계자들의 학습에 대한 욕구조사를 하면 '기획력 향상'이 단연 압도적 1위를 차지한다.

그러나 많은 평생학습기관 실무자들이 자기성장을 위한 교육훈련에 시간적, 재정적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다. 이런 조건에서 다양한 요구나 새로운 변화를 반영하여 창의적 기획을 하기란 어렵다. 결국 해마다 비슷한 프로그램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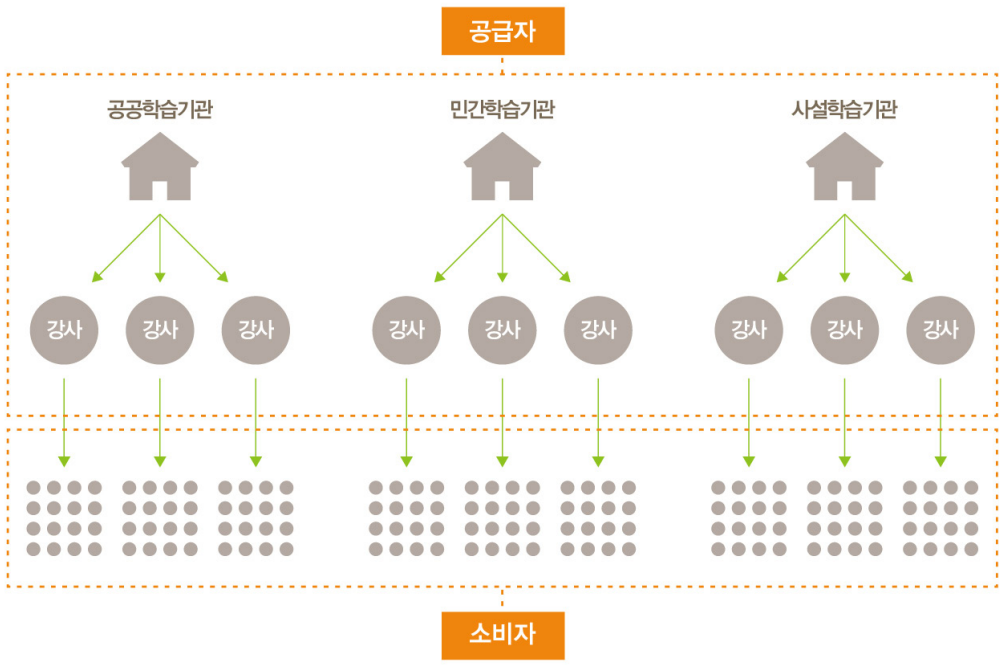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수강료

평생학습기관의 수강료는 일반 영리기관이나 학원에 비해서 저렴한 편이긴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그렇다고 강좌 전체를 무료로 개방할 수는 없다.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전액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곳도 수강료 수입이 있어야 하지만, 일반 평생학습시설의 경우는 수강료 수입이 운영재정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때문에 일정한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강좌는 진행하기가 어렵다. 차별화된 강좌를 개설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2) 수원시평생학습관의 발상의 전환

평생학습기관의 수요와 공급

평생학습기관에서 강좌를 기획하고 공급하면, 학습자들은 제공된 강좌 중에서 관심 있는 강좌에 비용을 지불하고 수강하게 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운영 기조와 시공간의 제약 등 조건 속에서는 일반적으로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 매우 제한적인 강좌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평생학습기관별 특징이 희석되고 대동소이하게 된다. 시민의 선택폭이 넓지 않은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누구나학교'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는 이 공급과 소비의 체계를 뒤집기로 했다. 시민이 단지 소비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 기획하여 강좌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시민의 참여'를 훌쩍 넘어 '시민이 주도하는' 체계이며, 누구나학교의 기본 발상이다. 누구나학교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조응하는 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한 것이다.

과거	현재
학교교육 (사회화를 위한 생애 초기의 집중 학교 교육)	**평생학습** (자기창조를 위한 생애 전반에 걸친 평생학습)
소수 엘리트 계층 재생산, 유지, 공고화를 위한 교육 (산업, 자본사회 운영을 위한 관리역할을 수행할 계층이 필요)	**다수의 지성 향상을 위한 대중학습** (지식사회의 성공을 위해서 누구나 지식 및 학습이 필요)
형식적 교육 (교실이라는 특수한 제도적 환경 하에서 교육)	**비/무형식 학습** (삶의 현장 어디에서나 학습, 일상 자체가 학습)
배움의 의미 : **지식, 스킬의 축적**	**배움의 의미 :** **삶에 대한 지속적 성찰 및 끊임없는 존재의 변화**
교육자 중심의 수동적 교육	학습자 중심의 능동적 학습
이성, 머리 중시	감성, 몸, 마음 중시
개인별 독자적 이해, 탐구로부터 배움	관계, 협동, 소통으로부터 배움
절대지식 및 가치 중시	구체적 실제적 경험으로부터 도출된 지식 및 가치 중시
자격을 갖춘 자만이 가르칠 수 있다	누구나 가르칠 수 있는 시민강사 시대
지식생산의 단위 : 조직	지식생산의 단위 : 개인 혹은 소규모 그룹
정부 중심의 공공 이슈 해결	정치 · 사회 · 경제 문제 해결에 대한 시민의 관심 및 참여 증대
학습시기 : 청소년 시기 집중	학습시기 : 청년, 주부, 시니어가 주도세력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2. '누구나학교' 1년의 도전과 실험

(1) 추진 배경

개인의 평생학습이 지역으로 환원되는 평생학습 문화의 변화

최근 평생학습도시들은 시민들이 배운 학습이 어떻게 지역으로 환원되는가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개인에 갇히는 배움이 아닌 서로 공유하는 평생학습은 지역의 공동체성을 재건하는 힘으로 작동한다. 이는 학습동아리도 마찬가지이다. 학습동아리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자원들을 지역과 함께 공유할 때 새로운 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평생학습 패러다임의 변화는 시민이 실질적 주체가 되는 시민교육운동의 실현

배움과 가르침의 경계를 허무는 평생교육의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 기존에 운영되는 내용과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평생교육의 공급자, 수요자 개념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실질적인 주체가 되는 평생교육의 장이 필요하다.

평생학습도시 수원의 특성, 환경을 반영한 프로그램 설계의 필요성

2005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수원은 평생학습에 대한 저변확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이다. 2011년 10월에 수원시평생학습관이 개관하면서 학습관이 프로그램을 얼마나 많이 운영하느냐보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한 시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를 주요한 역할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학습동아리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된 학습자들이 자유롭게 만나고 보다 적극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갈 플랫폼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학습주제, 학습조건에서 벗어나 강사와 학습자라는 경계를 허물고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시민참여의 장이 필요하다.

(2) 기본 콘셉트

누구나 가르칠 것이 있다

가르친다는 것은 부족한 부분을 함께 채워가는 과정이다. 당신의 지식과 경험은 누군가에게 필요하고, 누군가의 지식과 경험은 당신에게 필요하다. 학력, 나이, 직업, 자격증과 관계없이 누구나 가르칠 수 있는 학교이다.

필요한 모든 주제가 강의가 된다

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들은 학습기관에서 미처 배우지 못하는 지혜, 지식, 노하우 등이다.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면 지식, 재능, 소소한 일상, 경험, 재미 등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학교이다.

가르치고 배우며 서로 성장한다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다시 점검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하게 된다. 가르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가르치는 상호 협동학습을 통해 성장하는 학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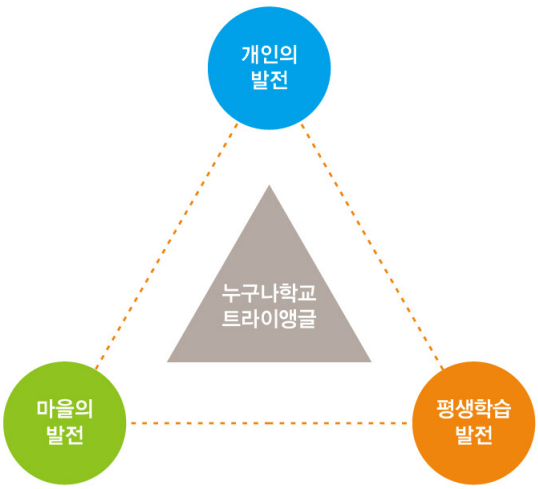
배움이 비쌀 이유는 없다

배우고 싶지만 비용 때문에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한다. 지식공유, 지식공헌의 학습문화 속에서 서로 배우며 성장하는 학교이다.

사람과 마을을 연결한다

우리 마을에서 이웃들이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시민주도형 평생학습 마을만들기를 실현한다. 우리 마을 누구나 선생이 될 수도 학생이 될 수도 있다. 수원 곳곳이 학교이다.

(3) 비전



〈누구나학교 비전〉

개인의 발전 : 익명에서 지역 일꾼으로 데뷔

강사로 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자신이 강사로 선다는 것을 전혀 상상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르친다는 것은 전문 강사나 하는 일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 상식이기 때문에 이 틀을 벗어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한번 경험을 해 보면 태도와 자세가 달라진다. 자신도 할 수 있다는 것, 자신의 작은 콘텐츠가 타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한 누군가를 가르침으로 인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받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런 기운이 퍼져 나간다면 잠재되어 있는 개인의 능력을 공적인 장으로 이끌어 내어 우리 사회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 더불어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성장뿐 아니라 지역 일꾼으로서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을의 발전 : 공유를 통한 개방성 확대

마을 공동체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일이다. 또한 마을공동체의 운영 발전에 학습공동체가 매우 요긴하고 중요한 솔루션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전문성을 마을공동체를 위해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 마을은 단단하게 뿌리 내릴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2013년 '더 체인지'의 컨퍼런스에도 마을공동체를 위해 서로가 가진 능력을 연결시키자는 주제의 논의가 진행되었다. 마을만들기는 이제 우리 시대의 주요 가치로 등극하고 있는데 누구나학교와 같은 시스템은 더욱 더 중요한 기제로 작동할 것이다.

평생학습계의 발전 : 학습생태계의 변화 견인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가 전일화 되어 있다. 시장은 곧 자본주의라는 등식이 성립되어 있지만 이런 기존의 체계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비자본제적 방식 즉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경제가 시장의 한 귀퉁이를 점령하기 시작했다. 평생학습계를 보면 거의 기관 중심으로 편재되어 있다. 이런 기관 중심의 시스템이 당분간 유지되겠지만 점차 비기관 형태의 학습시스템이 일정한 영역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누구나학교 시스템이 현재로서는 기존 방식에 대한 대체재 역할보다는 보완재로서 역할 정도에 머무르겠지만 점차 그 역할과 위상이 높아져 평생학습 생태계를 매우 풍성하게 만들 것이다.

(4) 누구나학교의 특징

운영방식의 변화

기존의 평생학습은 전형적인 탑다운(top-down)방식이다. 시민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나 니즈 분석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능력 및 방향성에 기초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전국 단위로 넓혀 보아도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어디나 대체로 비슷하다. 이것은 시민 요구의 동질성이라기보다는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기관의 유사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이에 비해 누구나학교는 그야말로 자발적인 상향식 방식이다. 최소한의 상식에 근거한 거름 장치는 있지만 누구나학교는 시민 스스로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안하며, 자발적으로 참여가 이루어지는 구조이다. 콘텐츠의 질 측면에서는 누구나학교가 아직 채워야 할 부분이 많지만, 콘텐츠를 생산하는 방식은 기존의 시스템이 따라 오기 어려운 장점이 있다.

시민의 주도적 참여

기존 평생학습 시스템에서 시민들은 잘 짜인 프로그램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대상이다. 여기에 시민이 더 이상 개입할 여지는 없다. 강좌를 들을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 외에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학교는 단순 참가가 아닌 주도를 하는 방식이다. 할 것인지 아닌지, 어떠한 내용을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 어디서 할 것인지, 누구와 할 것인지, 몇 시에 할 것인지, 이 모든 것을 스스로 기획하고 주도하여 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이 아니라 '시민주도형'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프로그램의 다양화, 세분화

기존 평생학습의 경우 일정한 공식에 의해 패턴화 되어 있다. 너무 식상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사람의 이목을 끌 수 있는 프로그램과 강사진. 기관 운영에는 당연히 재원이 소요되는 일이라 수강생 숫자에 신경을 쓰게 되고 강좌 운영도 최소한의 수강생을 전제로 진행이 된다. 따라서 콘텐츠의 안정감이나 세련됨은 있지만 파격적이거나 도전적인 혹은 소수의 관심만 끌 수 있는 프로그램은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평생학습계의 대동소이한 강좌유형도 이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이에 비해 누구나학교는 다양하고 세분화된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여러 운영조건의 제약으로 추진할 수 없었던 프로그램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또한 누구나 가르칠 수 있고, 어떤 주제도 강의할 수

있다는 개방성 때문에 새롭고 모험적인 시도를 충분히 할 수 있다. 평생학습기관의 정규강좌로 개설하기 전에 시범강좌를 열 수도 있다. 누구나학교는 평생학습의 범위를 확장하는 시스템인 것이다.

구분	기존의 평생학습	누구나학교
방식	Top down	Bottom up
참여	참가	주도
운영	안정	역동
역할	수동	적극
콘텐츠	소비	생산
비용	수강료	무료
프로그램	패턴화/미분화	세분화/다양화
인원	일정 규모 이상	소수 가능

〈누구나학교 특징〉

(5) 추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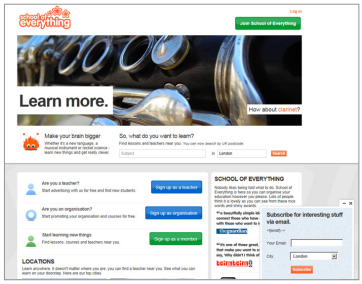
① 추진단계 및 일정

수원시평생학습관은 개관 초기부터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활성화가 핵심과제였다. 수원에 맞는 그리고 공공기관의 성격에 맞는 방법과 내용을 찾기 위해,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기도 하고 개념을 정리하고 이해하기까지 학습과 토론을 반복했다. 누구나학교는 '누구나 가르치고 누구나 배운다'는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초기에는 개념과 운영방법을 이해시키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많은 사람들이 기존 평생학습 방법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었다.
누구나학교는 1년여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크고 작은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누구나학교를 준비하고 만들어 온 1년간의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조사 및 설계

국내외 시민주도 학습과 관련하여 사례조사를 하면서, 수원시평생학습관처럼 공공기관에 맞는 시민

주도 학습의 형태와 내용을 설계했다.



학습관 주도로 강사 및 강의 발굴

강사를 발굴하기 위해 수원시평생학습관을 이용하고 있는 동아리, 강사,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추진했으며, 평생학습기관, 사회적기업, 자활사업단, 시민단체 등과 간담회를 열기도 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적으로 '누구나학교 강사 모집'도 하였다.

강의개설과 신청을 위한 플랫폼 구축

수원시평생학습관 일반강좌는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과 신청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누구나학교는 일반강좌보다 훨씬 간편한 시스템이 요구되었다. 온라인 카페를 만들어 간단히 회원가입만 하면 강의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수강신청은 관심 있는 강좌에 댓글로 신청하게 했다. 온라인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방문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이후 온라인 카페에 공유하였다.

누구나학교 개강

현재 누구나학교는 연중 수시로 강의를 개설할 수 있지만, 초기에는 월별로 홍보하고 모집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누구나학교는 2012년 6월 27개 강의를 열었다.

자발적 강의 개설 및 참여 형성

학습관 주도로 강사와 강의를 발굴하였으나, 점차 자발적 참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평생학습관을 이용하고 있는 강사, 동아리 회원들, 적극적 학습자들, 평생학습기관 실무자들이 누구나학교의 특징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자발적으로 강의 개설을 하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주로 주부들의 참여가 많았으나, 점차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이제는 고등학생, 직장인, 의사, 사회적 기업가 등등 참여하는 대상이 다양하다.

네트워크 파티 운영

누구나학교는 단순히 강의 개설을 몇 개 했는지, 몇 명이 참여했는지가 핵심이 아니다. 공유하고 협동하면서 크고 작은 네트워크가 형성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네트워크 파티를 통해 누구나학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속성을 가지면서, 더 나아가 지역에 이 활동을 알려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역으로 확대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한 누구나학교는 1년간 160여 개 강의를 개설하였고, 1천500여 명이 참여하였다. 이러한 성공적인 안착으로 누구나학교는 점차 수원 곳곳으로 퍼졌고, 더 나아가 전국으로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다.

2012년	3월 21일	**누구나학교 강사 모집 시작**
	3월 29일	**누구나학교 설명회 및 간담회** – NPO, NGO, 사회적기업, 평생학습 유관기관 및 동아리, 시민 등을 대상으로 누구나학교 사업 설명 및 강사모집 홍보
	4월 16일	**평실사협회 MOU체결** – 시민주도 평생학습 활성화 및 강의 발굴 등을 협력
	5월	**누구나학교 다음카페 개설**
	5월 17일	**네트워크 파티(1차)** –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학습교류를 경험하는 워크숍 진행 – 누구나학교 운영계획 발표 및 개설 강의 홍보 – 대상:누구나학교 강사, 동아리, 관심 있는 시민 등

2012년	6월	**누구나학교 개강** – 27개 강의 개강
	11월	**시민주도 평생학습 사례집 〈다른 학습은 가능하다〉 발간**
	12월 26일	**네트워크 파티(2차)** – 2012년 누구나학교 활동평가, 참여 강사 및 학습자들 간 공감과 소통의 시간을 마련함.
2013년	4월부터	**어디서나 응원전 (수원관내 근린공원 순회)**
	4월부터 상시	**'00이 여는 누구나학교' 설명회 및 Open party 진행**
	4월 25일	**시민주도 평생학습 심포지엄 '시민제작 일상학습'** **시민주도 평생학습 사례집 〈교육 경계를 허물다〉 발간**
	4월 30일	**'주민자치센터가 여는 누구나학교' 설명회**
	5월 1일	**응원단 발족식 및 '수원시장이 여는 누구나학교'**

〈누구나학교 추진일정〉

② 추진실적

누구나학교는 2012년 6월 처음으로 강의가 열렸다. 초기에 27개 강좌로 시작하여 2013년 4월 현재 180개 강의가 진행되었다. 참여 강사 수도 79명에 이른다. 1회만 참여한 강사도 있고, 같은 강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강사도 있고, 주제를 바꿔가며 강의하는 강사도 있다. 누구나학교에 참여한 학습자 수는 1,830명으로, 한 강의 당 평균 10여 명이 참석하고 있다. 수원시평생학습관 정규강좌가 연간 200여 개 개설되는데, 누구나학교 강의 개설 수와 비슷하다. 정규강좌만큼 누구나학교 강의가 개설된 셈이다.

기준 : 2012년 6월~2013년 4월

개설 강의 수	180개	
참여 강사	79명	
참여 학습자	1,830명	
진행된 강의 (일부 예시)	학생들이 여는 누구나학교	– 여고생 민경이의 재미난 미술사 – 장학생 성철군의 공부법
	부모들이 여는 누구나학교	– 엄마들의 힐링스쿨 – 엄마표 생활영어

진행된 강의 (일부 예시)	환경지킴이들이 여는 누구나학교	– 패트병을 이용한 수경재배기 만들기 – 버려진 종이로 만드는 쇼핑백
	사회적 기업가가 여는 누구나학교	– 짜로사랑과 함께하는 천일염 두부 만들기 – 공정여행 따라잡기
	전문가들이 여는 누구나학교	– 우리 동네 의사선생님의 굿바이 디스크 – 수요일에 만나는 착한 가정경제 멘토
	시니어가 여는 누구나학교	– SNS로 젊음과 소통하기 – 생생놀이단의 손주와 함께하는 전통놀이마당
	솜씨 좋은 이웃들이 여는 누구나학교	– 발렌타인데이 수제초콜릿 만들기 – 졸업맞이 꽃다발 만들기
	학습관 직원들이 여는 누구나학교	– 볼매녀의 프레지 맛만 보기 – 송대리의 시부야 대학배우기

〈누구나학교 추진실적〉

③ 누구나학교 프로그램이 남긴 것

이웃집 아티스트들의 등장

창작은 문화예술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주변에는 숨은 재주꾼들이 많다. 일명 이웃집 아티스트! 누구나학교에 이런 재주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클레이아트, 종이접기, 우드아트, 리본공예, 뜨개질, 코바늘뜨기, 퀼트, 헤어밴드 등. 이웃집 아티스트들이 진행하는 생활창작 강좌는 단연 누구나학교의 가장 인기강좌다. 누구나학교를 통해 핸드메이드 제품이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다.

오늘은 선생, 내일은 학생. 릴레이 강의

누구나학교에서는 '릴레이강의'라는 새로운 형태의 강의가 진행되었다. 강의에 참여한 사람들끼리 가르칠 수 있는 것을 돌아가면서 가르친다. 퀼트 다음에 뜨개질 그 다음에 자투리 천으로 꽃다발 만들기 등등. 강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함께 하는 이들의 응원에 힘입어 강의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학생에서 선생으로 자연스럽게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낮에는 직장인, 저녁에는 누구나학교 강사

직장인들이 자신이 평소 관심 있었거나 재능이 있었던 것들을 가지고 강의를 열기 시작했다. 지금 하고 있는 일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주제들이지만, 글쓰기, 시 쓰기, 수제품 만들기, 미술사, 프레지 등의 강의가 열렸다. 직장인들이 누구나학교를 통해 또 다른 재미와 인연을 만들어 가고 있다.

학습동아리들의 지역사회 참여

학습동아리들이 누구나학교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기도 하고 배움을 나누기도 한다. 학습동아리는 약간의 폐쇄성이 있기 마련인데, 누구나학교를 통해 자연스럽게 개방이 된 것이다. 백권가약 동아리, 다연회, 버드내무용단, 발명동아리, 소리향기 등의 학습동아리가 참여했다. 또 누구나학교 강의에 참석한 사람들끼리 동아리를 만들기도 한다.

마을에 숨어있던 사회적기업과 함께 놀며 배우기

사회적기업이나 자활센터의 경우 판매나 영업활동 외에 시민들과 직접 만나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일이 많지는 않다. 누구나학교를 통해 시민들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고, 시민들은 사회적기업이나 자활센터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두부 만들기, 도예체험, 화분 키우기 등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세대공감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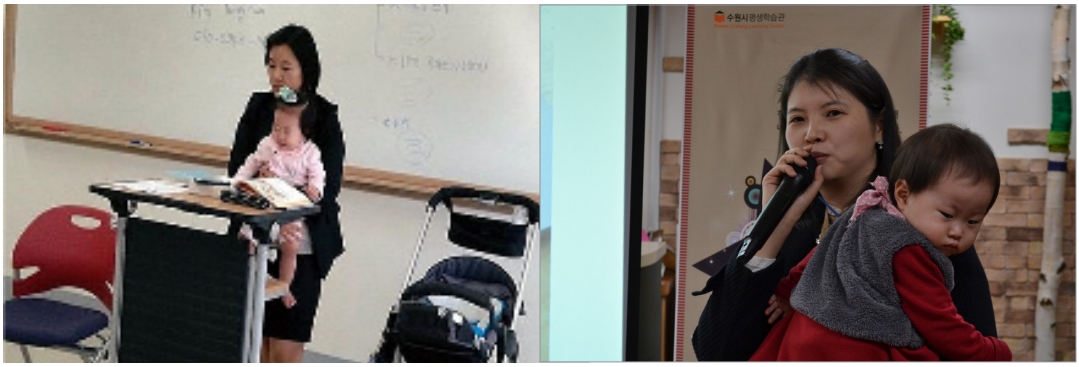
고등학생이 시니어를 대상으로 SNS 강의를 열기도 하고, 대학생이 주부들을 대상으로 기타교실을 열기도 한다. 반대로 시니어들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통놀이마당을 열기도 한다. 나이에 상관없이 서로 가르치고 배우며 세대공감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의 지식공유

전문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함께 공유하고자 누구나학교를 찾았다. 의사선생님의 디스크 강의와 관절염 강의, 언어치료사의 아이 언어습득 강의 미술선생님의 팝아트 강의 등이 열렸다.

형식의 파괴. 아이 안은 강사의 등장

아이를 안고 강의를 진행하는 강사를 종종 볼 수 있다. 누구나학교에서는 강사가 아이를 안고 진행해도 누구 하나 불편해 하지 않는다. 아이가 있어서 계속할 수 없었던 공부나 강의를 누구나학교를 통해서 계속해 나가고 있다.



상상하는 무엇이든 가르칠 수 있는 학교

'내 안의 창조성을 깨우는 글쓰기' '쉽고 친절한 서평쓰기' '그림책으로 상상력 UP' '새해설계 워크숍' '자아찾기 네비게이터' '안나카레리나 맛있게 읽기' '성격만 알면 행복해진다'등. 이렇게 다양한 아이템의 강의를 한 명의 강사가 진행했다. 할 수 있거나 해보고 싶은 모든 것을 해 볼 수 있는 곳이 누구나학교다.

고등학생 강사를 만날 수 있는 곳

방학 중에 고등학생을 위한 '누구나쌤' 워크숍이 열렸다. 고등학생들은 서로 가르치고 배우며 다양한 미래를 꿈꾸었다. 그 중에 미술사 공부를 좋아하는 여고생이 성인을 대상으로 강의를 열었다. 아직 배우는 학생이라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며 강의를 진행했다. 누구나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만들어 나가는 데 보탬이 되고 있다.

3. 누구나학교 성과와 향후 추진전략

(1) 성과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모델,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평생학습을 통한 개인의 성장, 사회의 변화를 도모하는 평생학습 패러다임의 변화를 만들어냈다. 시민이 주도하는 새로운 평생학습 모델인 '누구나학교'가 수원의 지역모델에서 전국 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평생학습의 사회화, 공공성 확대

세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이 참여 가능한 열린 학습의 장을 마련했다. 개인(집단)의 지식과 경험이 지역사회로 확대되고, 학습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 것이다.

학습자의 성장을 통한 평생교육 리더 발굴

학습자로만 참여하는 것이 아닌 강의를 기획하고 가르치는 경험을 통하여 동네에서 살아가는 이야기, 사람들이 고민하는 이야기 등에 관심을 갖고 지역의 리더로서 성장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다양한 주제, 다양한 강사, 다양한 형식으로 평생학습의 범위 확대

평생학습기관의 운영범위에서 다뤄지기 힘들었던 다양한 강의들이 개설되었으며, 그 형식도 다양했다. 고등학생이 시니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애기를 안고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수강생이 1명이어도 강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그리고 우리 이웃의 생활 아티스트들, 고등학생, 카페 바리스타, 직장인, 동네의사 등이 강사로 참여함으로서 평생학습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2) 전략 및 발전방향

누구나학교는 이제 채 1년도 되지 않았다. 이제 시작단계인 것이다. 그만큼 보완해야 할 것이 많은데 특히 강의의 양과 질 측면에서 아직 아쉬움이 많다. 더 풍성한 강의 개설로 선택의 폭과 참여 정도가 더 커져야 한다.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또한 시민 한 명 한 명의 개별적 참여 외에 기관 자체가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좀 더 효율적이며 전략적인 접근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① 플랫폼 구축 '누구나학교 지원센터'

수원시평생학습관은 단순히 '누구나학교 강의'를 운영하는 수준을 넘어 지원센터로써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학습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누구나학교를 보다 풍성하게 운영하면서 누구나학교가 어디서나 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누구나학교 운영프로세스는 복잡하지는 않지만 처음 시작하려면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이기 때문에, 누구나학교를 준비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위해 설명회 및 오픈파티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참여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강의를 열고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학습 중개형 온라인 홈페이지를 준비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시민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시민운영단 발족'을 계획하고 있다.

② 시민협력을 통한 활성화 '누구나학교 응원단'

우리는 누구나학교가 수원 곳곳에서 정착되어 지역공동체를 위한 솔루션으로 작동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래서 수원시평생학습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닌 수원시민이 주체가 되어 누구나학교 활성화를 위한 시민캠페인을 전개하고자 한다.

시민캠페인을 진행할 경우 핵심주체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누구나학교 응원단'이다. 누구나학교의 취지와 가치에 동의하고 누구나학교를 대표하여 시민 캠페인을 전개하는 누구나학교 응원단(지역 오피니언 리더로 구성)의 결합으로 누구나학교 운동이 좀 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 시민캠페인의 시작으로 수원시장부터 강사로 참여해서 시민들과 만나게 될 것이다.

③ 지역으로 심화 '어디서나 열리는 누구나학교'

지금 누구나학교는 수원시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나학교의 최종 형태가 결코 아니다. 누구나학교의 개념이 무엇이며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쇼케이스이고 모델하우스인 셈이다. 모델하우스가 아닌 진짜 집은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에 지으려고 한다.

지식의 거래가 아닌 삶의 공유

누구나학교가 추구하는 것은 지식의 전수나 교환이 아니라 삶의 공유를 통한 지역의 변화이다. 따라서 실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할 때 누구나학교 시스템이 내장한 장점이 극대화될 수 있다.

그래서 2013년에는 수원의 지역으로 들어가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수원시 주민자치센터와 결합하려고 한다. 전체 워크숍을 통해 희망하는 지역의 주민자치센터와 손을 잡고 누구나학교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주민자치센터의 누구나학교는 평생학습관을 기반으로 했을 때와는 여러 모로 차이를 보일 것이다. 올해는 주민자치센터에 특화된 누구나학교로 새롭게 진일보할 것이다.

또한 아파트단지로도 들어가고자 한다. 부녀회나 혹은 뜻을 두고 있는 분들과 함께 아파트 단지의 커뮤니티 형성과 일상의 학습을 위해 단지 속으로 파고들어 갈 것이다.

기관의 집단적 참여! 경기지방경찰청

평생학습관은 경기지방경찰청과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기동단 소속의 청년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재능을 누구나학교를 통해 공유하게 될 것이다. 전국에서 모인 청년들이 어떤내용을 가지고 접근할지는 모르겠으나 이를테면 '불심검문에 의연하게 대처하는 요령' '간단한 호신술 배우기' '범죄피해 예방방법' 등등 기동단 업무와 연관이 있으면서 시민들도 관심 있는 주제들이 오고간다면 그것도 참 재미있는 삶의 공유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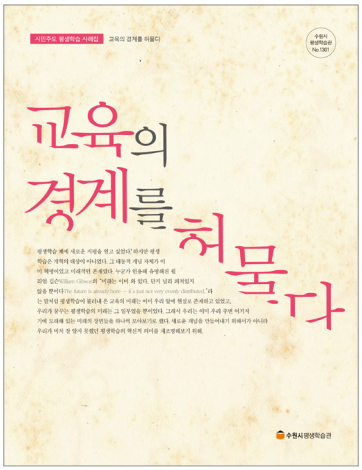
수원 시민 개개인에게 접근하여 홍보하고 참여를 권유하는 것을 넘어 이처럼 특정한 기업, 기관에 접근하여 홍보와 참여를 일시에 설득할 수 있는 효율적 접근을 통해 누구나학교의 플랫폼을 더 단단하게 하고 활성화할 계획이다. 향후로는 수원시 공무원, 시의원, 각 기업체, 의료기관 등 다양한 기관, 오피니언 리더들과 함께 누구나학교를 진행할 생각이다.

④ 전국적 롤모델 확산을 위한 싱크탱크 기능

누구나학교는 수원지역뿐 아니라 타 지역에도 그 내용과 방법을 알려나가고자 한다. 누구나학교의 보급뿐 아니라 국내외 시민주도형 평생학습 사례를 발굴하고 조사 연구한 것을 관련 단체 및 사람들과 공유해 나갈 것이다.

2012년 영국탐방보고서에 이어, 올해 2013년에는 국내외 시민주도 평생학습 사례집 〈교육의 경계를 허물다〉와 〈누구나학교 스토리텔링북〉을 발간할 계획이다. 〈수원평생학습동향리포트 와〉를 통해서도 혁신적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제작 일상학습'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평생학습기관으로 분류되는 기관 위주가 아닌 보다 다양한 성격의 단체와 사람들이 참여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수원시평생학습관은 이후에도 꾸준히 누구나학교 사례 보급, 사례집 및 연구보고서 발간, 심포지엄 개최,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평생학습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나가는 역할을 해 나가고자 한다.



4. 글을 마치며

평생학습기관들은 지금까지 넉넉지 않은 예산과 적은 인력으로 고군분투해 오고 있다. 아직까지는 이런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결국 당분간 담당자들의 의지와 노력을 에너지 삼아 평생학습체계가 구동될 것이다.

다행히 시민 스스로 배움에 나서고 있다. 아직 전면화 되고 있진 않지만 소중한 씨앗이 발아하고 있

음을 현장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각급 평생학습기관들은 이런 시스템이 지역과 기관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일상의 학습이 좀 더 단단해진다면 평생학습기관은 그들이 하기 어려운 방법이나 좀 더 발전된 형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콘텐츠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에게는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앎이 소중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할 수도 있다. 평생학습시설을 찾는 시민의 관점과 이해요구는 모두 다를 수 있겠지만 평생학습기관이 갖춰야 할 기본자세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누구나학교를 경험한 정현희 씨는 "가족같은 분위기로 편안하게 진행되어서 좋고" 함께 참여한 분들과 "얘기를 도란도란 나누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었고" 그래서 더불어 배우면서 "힐링이 되기도 했다"고 한다.

이것은 수강료라는 돈을 매개로 지식이 전수되는 강좌에서는 보기 어려운 풍경이다. 전문 강사가 아니라 비록 서툴지만 서로가 가르치고 배우는 편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소중한 모습이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 배움의 즐거움을 서로 나눌 수 있다면 지역과 맞물리는 순간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소중한 솔루션이 되리라 생각한다. *

building hope together

더 많은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의 희망을 나눠주세요.

희망제작소는

지역과 현장 중심의 연구를 통해 살아있는 대안을 만듭니다.
농촌과 지방을 살기 좋은 마을로 가꿔나갑니다.
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며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세웁니다.
공공리더와 시니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우리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시민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사회혁신의 원동력으로 삼습니다.
1만명 시민의 힘으로 움직이는 시민참여형 연구소입니다.

희망제작소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후원회원이 되시면,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의 각종 강연, 세미나에 초청합니다.
희망제작소 발간도서 구입 및 교육, 강연 수강 시, 할인혜택을 받습니다.
후원회원을 위한 특별한 회원모임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의 연간 사업 활동을 정리한 애뉴얼리포트를 매년 보내드립니다.

후원하기

후원회원 가입 문의 : 02-2031-2130 / give@makehope.org
후원계좌 : 하나은행 271-910002-36004 (예금주-희망제작소)

희망제작소
The Hope Institute

110-012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290-11 비전빌딩 2~4층 | 전화번호 02-3210-0909 | 팩스 02-3210-0126